

# '무제한 요금제' 11월부터 보상

###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확정 '데이터' LTE 쿠폰 제공 '음성' 부가·영상 통화 '음성·문자' 과금액 환불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와 관련한 이동통신 3사의 시정 조치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이 확정됐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했던 소비자 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데이터 쿠폰 이나 과금액 환불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동사들은 요금제에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3사와의 협의 를 거쳐 5일 집의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고 밝혔다.

동의의결안이 보내지면 해당 업체는 1~2개월 내에 시정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이동사들은 11월 1일부터 ▲ LTE 데이터 제공 ▲ 부가·영상통화 제공 ▲ 음성·문자 초과사용량 과금액 환불 등의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동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2015년 10월)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1GB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4D 롤러코스터의 스릴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 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의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가 11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 올림픽 파크에 위치한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장애인 아동 초청행사를 진행했다. 브라질 장애인 아동들이 11일 국제 패럴림픽 위원회(IPC) 무선통신 분야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가 마련한 갤럭시 스튜디오의 '기어 VR스테이션'에서 기어VR로 4D 롤러코스터의 스릴을 즐기고 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2508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제공 통화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소비자는 부가·영상 서비스를 제공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3사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쿠폰, 부가·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 기간, 사용 기간 등을 SMS로 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SKT와 KT는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용 한도 초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

부를 환불한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11월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시정방안도 마련됐다.

이동3사는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요금제 관련 표시 광고에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자막으로 안내하고, 영상 광고에는 음성으로도 '제공량, 속도에 제

한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기로 했다.

이동3사는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그 해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뒤 이동3사와 이해 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표시 광고법에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최초 활용 사례"라며 "부당광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와 피해 구제 조치를 해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

## 되살아난 9월 美 금리인상 우려

### 채권값 약세... 국고채 3년물 금리 전날보다 2.5bp 올라

사그라들었던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채권금리가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채권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값 약세를 뜻한다.

1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오전 11시30분 장외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2.5bp(1bp=0.01%) 오른 1.353%에 거래되고 있다. 국고채 1년물은 1.7bp 오른 1.341%, 5년물은 1.8bp 오른 1.394%에 거래 중이다.

장기물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고채 10년물은 전 거래일보다 5.8bp 오른 1.570%, 20년물은 4.8bp 오른 1.602%에 거래되고 있다. 30년물은 5.2bp 오른 1.602%에 거래 중이다.

앞서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 등 연방

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이달 금리인상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적인 완화정책을 기대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한 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논란에 따른 미국채 금리 급등 등이 채권금리 상승을 견인했다"며 "높아진 변동성과 상승 리스크를 고려할 때 단기 위험 관리 구간으로 저가 매수 판단은 9월 FOMC 이후로 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박종연 NH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최근 연준 위원들의 잇따른 금리 인상 시사 발언으로 9월 FOMC 전까지는 불안감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FOMC 이후로는 불안 심리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뉴스

## 한국지엠 노사, 임단협 교섭 최종 타결

한국지엠주식회사 노사가 지난 6일 도출한 '2016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최종 타결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9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총 1만2851명이 투표, 이중 7567명(58.9%)이 찬성함으로써 올해 임단협 교섭을 최종 마무리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3차례 교섭을 가졌으며, 지난 6일 ▲기분급 80,000원 인상 ▲격려금

650만원(타결 즉시 지급) ▲성과급 450만원(2016년말 지급) 등 임금 인상과 미래발전전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스파크, 말리부와 카마로SS 등 주력 인기 모델을 중심으로 내수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지엠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노사간 상호 신뢰와 경쟁력 있는 신제품을 바탕으로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 회사 출범 이후 최대 내수판매 실적 달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정근 기자

## 車보험 최초 가입자 '경력 인정제' 로 보험료 최대 52% ↓

### '자동차 보험 절약 8가지 지혜' ... 운전자 범위 설정 따라 250만원 덜 낼 수도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가 운전 경력 인정제를 활용할 경우 보험료를 최대 52% 낮출 수 있다.

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25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낼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일곱 번째 금융꿀팁으로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지혜' 를 안내했다.

최초 가입자는 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이 제도는 본인 외에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두 명에 대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할증률은 1년 미만일 경우 52%, 1~2년 20%, 2~3년 5% 등이다.

보험회사는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 신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할증하고 있다.

운전자 범위 결정 역시 보험료 인하를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운전자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연령제한 특약에 가

입하면 보험료가 인하된다.

운전자 범위를 1인 및 30세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보험료는 73만원 수준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327만원으로 차액이 254만원에 이른다.

단, 한정된 자 외에 운전자가 사고를 낼 경우 책임보험에 한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또 1년 간 사고가 3건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되므로 안전운전이 보험료 절약의 첫 출발이다.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DMB를 시청하거나 휴대폰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실비율이 10% 가중된다.

마일리지 특약이나 블랙박스 특약, 대중교통 이용할인 특약 등을 활용하거나 가입 전 자동차 보험 상품 비교 포털인 '파인'의 '보험다모아' 를 통해 검색하는 것도 방법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95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보험시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현대·KB·동부 대청사 네 곳의 수입보험료 기준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

## '갤럭시노트7' 대여폰 지원 시작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대여폰 지원이 12일부터 시작됐다.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권고로 대여폰 물량이 부족하자 대여모델은 갤럭시S7·엣지뿐 아니라 갤럭시 A·J 시리즈로 확대됐다. 프리미엄폰인 갤럭시S7·엣지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중저가 제품군인 갤럭시 A·J 시리즈는 일선 대리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시장은 올해 상반기 기준 삼성·현대·KB·동부 대청사 네 곳의 수입보험료 기준 전체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

어 배터리 폭발 논란에 휩싸였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에 이어 사용 중지 권고란 극단의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갤럭시노트7을 사용하는 한국 소비자 여러분께 사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 조치를 받을 것을 권고드린다"고 밝혔다.

국도교통부는 비행기 안에서 갤럭시노트7의 전원을 끄고 충전도 하지 말라고 공지를 내렸다. 갤럭시노트7의 위탁수하물도 금지했다. /뉴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